

동네 도서관에서 찾는 인문학의 즐거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올해 광주·전남 37곳 선정
강연·유적 답사·글쓰기 등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공지

인문학 강연, 유적 답사, 문화체험, 독서, 글쓰기 등...

지역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좌를 듣고 유적 탐방, 체험도 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이 올해도 진행된다.

이번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에는 광주시립사직도서관, 전남대 도서관, 목포시립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순천시립연향도서관 등 지역 도서관 37곳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참여할 도서관 390개관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는 강연·현장탐방 체험 활동을 연계한 '자유기획'(277개), 학교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인 '자유학년제'(23개), 인문 독서 활동인 '함께 읽기'(50개), 인문 글쓰기 프로그램인 '함께 쓰기'(40개) 등 4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자유기획' 분야에는 광주 14곳, 전남 13곳 등 모두 27곳이 선정됐으며 '함께 쓰기' 분야에 광주 2곳, 전남 8곳 등 모두 10곳이 포함됐다.

▷자유기획 ▲광주=시립산수도서관 '생각해봄, 바라봄, 느껴봄', 남구문화정보도서관 '도서관 속 인문학관 : 인권, 그 뜨거운 이름으로', 남구푸른길도서관 '모던 건축 인문학-사람과 공간의 새로운 유대', 북구운암도서관 '나무와 숲, 사람 그리고 마을', 북구일곡도서관 '생활공간에 담긴 인문학', 송정도서관 '현명한 삶을 위한 다독다독(多讀多讀)



지난해 진행된 광주남구푸른길도서관의 '길 위의 인문학'에서 참가자들이 순천문학관을 방문했다. <푸른길도서관 제공>

독특(talk talk)',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4차 산업혁명시대, 독서로 광주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남구청소년도서관 '인문학에 자연을 담다', 상록도서관 '한 국민의 정서, 恨과 興의 문학', 신가도서관 '소통의 인문학', 운남어린이도서관 '도서관, 예술로 인문학하다', 이야기꽃도서관 '그리고 나', 장덕도서관 '문화재로 보는 시대를 담아낸 예술, 그리고 마을-돌담도 마을의 예술이다', 침단도서관 '명인 명사를 찾아 떠나는 차(茶)문화 기행'.

▲전남=강진군도서관 '우리동네 굽이굽이 옛이야기길', 광양시립종마도서관 '아름다운 너머 사람읽기', 광양시립중앙도서관 '간과된 땅, 그곳의 숨겨진 이야기', 광양희망도서관 '차별 없는 세상, 함께하는 우리', 나주공공도서관 '건축, 인간을 담다-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건축 속 인문학', 나주시립도서관

'전통과 현대, 그 갈림길에서', 목포시립도서관 '남도문화의 맛과 정신을 통해 가지 있는 삶을 본다', 별곡공공도서관 '전라도 정령 천년, 남도가 품은 역사와 문화원형 이해', 빛가람시립도서관 '우리 동네 나주, 1000년 숨결을 느끼다', 순천시립삼산도서관 '인문학 선비에게 길을 묻다', 영암도서관 '구름도기 역사 이해와 예술성의 전승 개발', 전남도립도서관 '보고 읽고 그리는 예향의 전말', 해남군립도서관 '남도의 숨결 따라'.

또한 '함께 쓰기'분야는 참가자 중심의 능동적 인문 참여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된다. 직접 집필, 제작, 출판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함께 쓰기 ▲광주=시립사직도서관 '역사와 낭만이 있는 우리 마을, 나만의 글로 소개하다', 전남대도서관 '나의 버킷리스트 '작가'-푸른 길 인문학'.

▲전남=고흥군립북부도서관 '물음표와 느낌표로 만나는 여정을 다양한 글로 담기', 고흥군립중앙도서관 '마을이 다독이는 글쓰기와 그리기', 고흥평생교육관 '나의 겨울 그리고 봄을 찾는 내 인생-어르신 그림책작사서전', 곡성교육문화회관 '미래의 나를 그려본다-모르는 나' 사용 설명서', 구례군매전도서관 '역사가 된 어머니, 구례 女史 자서전', 목포공공도서관 '우리 가족, 내가 찾은 인문학', 순천시립연향도서관 '미래자서전으로 진로를 디자인하라', 장성공공도서관 '워라밸을 위한 삶의 흔적 남기기'.

한편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참여 희망자는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지역과 일정을 확인 후, 해당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비운의 문신' 수는 생애 조명

강대석 박사 '수는 강항 평전' 출간

올해는 영광 출신 유학자이자 의병장인 수는(睡隱) 강항 선생(1567~1618)이 타계한지 400주년이 되는 해다.

조선 중기 문신인 수는 선생의 일생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삶 그 자체였다. 정유재란 당시 왜적에게 붙잡혀 일본에서 2년 8개월 간 포로생활을 했고, 생환 후 출사를 포기하고 18년의 은둔의 생활을 보냈다.

포로로 끌려가 일본에 유학을 전한 비운의 천재인 수는 강항을 다룬 평전이 나왔다.

장성 출신으로 광주일보 은편칼럼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대석 박사가 펴낸 '수는 강항 평전'은 타고난 문인이자 실천적 도학자였던 강항의 생애와 학문 등을 다룬다.

강 박사가 수는 선생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갖게 된 것은 지난 20년 전의 일이다. "수는 선생의 '간양록'을 읽으면서 저지 않은 감명을 받고 한동안 책을 놓지 못한 적이 있었다. 그 기억은 오랫동안 내 삶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그 후 자연스럽게 수는 선생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 이어졌다."

저자는 수는 선생의 관련 자료를 섭렵해 선생의 생애 전반을 조명했다. 선생의 생애는 크게 3기로 구분된다. 제 1기는 출생 이후부터 사환기(仕宦期)까지이며 제2기는 정유재란 시 왜적에게 피랍돼 생활하



강대석 박사

지, 제3기는 생환 후 향리에서 보낸 은둔기로 구분할 수 있다.

강 박사는 책을 쓰면서 선생의 업적을 일반적으로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다. 가급적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해 중립적 시각을 유지했다. 또한 수는 선생이 살아온 시대상황을 반영해 선생의 인간적인 모습을 투영하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사건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수는 선생의 생애에 영향을 미친 위주로 일상을 구성했다.

한편 저자는 전남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남공무원교육원장 등 34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월간 순수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한국문인협회, 순수문학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광주일보 은편칼럼 등을 수장했으며 시집 '겨울을 나는 산새', 칼럼집 '은빛 세담' 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장르 넘나들며 다양한 공연 즐긴다

유·스퀘어 문화관 패키지 티켓

유·스퀘어 문화관이 공연 관람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금호아트홀과 동산아트홀 공연의 패키지 티켓을 판매한다.

패키지 티켓은 크게 클래식 공연과 연극, 뮤지컬 공연이 결합된 더블패키지(Summer, Autumn)와 클래식 공연만으로 구성된 클래식패키지 두 가지로 구분된다.

'더블패키지 Summer'는 7월5일 예정돼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와 피아니스트 문지영의 듀오 리사이틀 티켓 1매와 6월29일~9월16일로 예정되어 있는 공포연극 '모가지' 기간 프리 입장권 2매를 제공한다.

'더블패키지 Autumn'은 10월15일 만날 수 있는 피아니스트 김다미의 베토벤 소나타 리사이틀 티켓 1매와 10월5일~12월31일 열리는 뮤지컬 '달동네 콤플렉스' 기간 프리 입장권 2매를 포함한다.

바이올린, 피아노, 성악, 실내악 연주회로 구성된 '클래식패키지'는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음악회로 구성됐다.



피아니스트 김다미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클래식패키지를 통해 김다미, 피아니스트 문지영 듀오 리사이틀, 김다미 리사이틀, 테너 김세일, 피아니스트 손민수 듀오 콘서트(11월20일),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12월19일)를 만날 수 있다.

패키지 티켓은 오는 29일부터 6월19일까지 3주 동안 판매된다. 자세한 내용은 유·스퀘어 문화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360-8433, 8437.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조유리 시인, 시산맥 시선 당선 시집 펴내

'흰 그늘 속 검은 잠'

조유리 시인이 계간 시산맥 제17차 기획시선 공모 당선 시집 '흰 그늘 속 검은 잠'(시선)을 펴냈다.

모두 65편의 시가 수록된 시집에는 때때로 시의 깊이를 보여 주는 작품들이 담겨 있다.

화자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자아적 발현을 통해 치열하게 내면을 들여

다본다. 타자와 세계를 향한 소통보다 내면의 의식에 집중하는 경향은 자못 이채롭다.

"한 삼 폭퍼서 언덕 아래로 뿌리면 그대로 몸이 되고 피가 돌 것 같구나// 목단 아래로 검은 흙더미 한 채 배달되었나/ 누군가는 퍼 나르고 누군가는 삼등으로 다지고// 눈발들이 언 손 부비며 사람의 걸음걸이로 물러온다/ 다시 겨울이군, 살았던 날 중/ 아무것도 더 따겨



나갈 것 없는 파지(破紙)처럼/ 나를 집필하던 페이지마다 새하얗게 세어..."

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번 시집의 또다른 특징은 평자의 해설을 빼고 과감히 '시로 쓰는 산문'과 '요가 에세이'를 수록했다는 점이다.

십 수 년 동안 요가의 길을 걸어오기도 한 시인은 "우리는 매 찰나의 숨구멍에 무엇을 지퍼 아름다운 소멸을 향할 것인가"라는 삶의 존재론적 질문을 던진다.

한편 조 시인은 지난 2008년 '누에의 방'의 4편이 '문학·선' 신인상 공모에 당선된 문단에 나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적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제주흑돼지 전문점 꽃담 동구 밤살로 48-1 (법원 뒤편) 제주흑돼지 삼겹살 제주 오겹살 (영업시간 오후3시~) ☎062)233-9992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메타루이펜션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377-1번지 (담양프로방스영) 편백과 황토로 지은 자연건강 속속 가족탕 겸함, 예약받습니다. ☎061)383-2698, 010-3603-2698	셋강다슬기 서구 풍곡로 12번길 11(중앙동 정문앞) 다슬기수제비·탕, 다슬기토정탕, 다슬기탕·오리백숙, 다슬기 두부전골 단체손님환영 대표 김병환 ☎062)233-3636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청학철학원 북구 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현,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실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하중 ☎062)224-4869	하안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러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옆길) 하모(참장어), 사바사바 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내담대구탕·찜 북구 문흥동 954-8번지 대구탕, 해물갈비찜, 아구찜, 전골 단체모임 환영 대표 한혜숙 ☎062)471-5050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예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한솔도시락 서영대점 북구 운암동 885-35번지 모든 도시락 포장가능, 단체도시락 주문 받습니다. 대표 김용경 ☎062)524-6078, 010-3152-0739